

4년 만의 '가을 잔치' 준비... 타이거즈 총력전 펼친다

T 타이거즈 전망대

4년 만의 '가을 잔치'를 위한 KIA 타이거즈의 총력전이 펼쳐진다.

갈 길 바쁜 KIA는 지난주 3승 3패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NC 다이노스와 '운명의 3연전'에서 2승을 거뒀고, 마지막 가능성을 엿보던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승리를 더하면서 5강행 청신호를 켰다.

10월 8일 2022시즌 최종전까지 막판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는 5위 KIA와 6위 NC. 이번 주 일정은 KIA에 유리하다.

지난 24일부터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8경기를 남겨둔 KIA는 이번 주 3경기만 치른다.

목요일인 29일 광주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하고, 토요일인 10월 1일 SSG 랜더스와 올 시즌 마지막 대결을 한다. 이어 대전으로 건너가 10월 2일 한화 이글스와 맞대결에 나선다.

세 경기에 맞춰 마운드 총력전이 가능한 KIA와 달리 11경기가 남은 NC는 이번 주 6경기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 팬들의 시선이 NC로 향하게 된다.

NC는 이번 주 순위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 일단 3위 굳히기에 나선 키움 히어로즈와 27일 만나고,

롯데·SSG·한화와 3경기 치러

KIA, 남은 8경기 막판 스퍼트

6경기 소화 NC 성적에도 관심

1.5경기 차 8위 삼성과 28·29일 창원과 대구에서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 1위 불씨를 살리려는 LG 트윈스의 안방으로 가서 3연전을 펼쳐야 한다.

NC의 승패에 따라 3경기만 치르는 KIA의 5강 경우의 수는 매일 달라진다.

지난주 맞대결 승자가 되면서 KIA는 유리한 고지에 섰다. 남은 8경기에서 4승 4패, 5할 승률만 기록해도 NC는 11경기 중 9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한결 여유롭게 5강 싸움을 이어가게 됐지만, KIA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을 확정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타선의 집중력이 관건이다.

지난주 KIA는 좌완 선발진이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초반 싸움을 벌여줬다.

두 경기를 책임진 놀린이 14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9월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고, 파노니는 3루수 김도영의 실책이 빌미가 돼 6실점을 했지만 6이닝 3자책점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구에서 틀러코스터를 뒀지만 6이닝 무실점, 시

즌 12번째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9승을 기록했다.

양현준은 5이닝에 만족해야 했지만, KBO 첫 8년 연속 170이닝을 달성하는 등 선발진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타선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흐름을 내주고, 뒷심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어졌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53개의 안타와 25개의 사사구를 얻어냈다. 하지만 6경기를 하면서 홈에 들어온 주자는 15명에 불과했다.

20일 LG와의 경기에서는 7회와 8회 연달아 1사만루 기회를 만들고도 단 1점도 뽑지 못하면서 1-11 패를 당하기도 했다.

과외에서도 밀렸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2개의 홈런밖에 만들어내지 못했고, 반면 피홈런은 6개를 남겼다.

25일 삼성전에서 모처럼 3안타 경기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룬 나성범에게 시선이 쏠린다.

나성범은 삼성전에 앞서 지난주 5경기에서 21타수 3안타 0.143의 타율에 그쳤다. 볼넷은 하나밖에 골라내지 못했지만 6차례 삼진으로 몰려났다.

또 9월 4·6일 8일 3개의 홈런을 기록한 이후 15경기에서 담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한숨 돌린 KIA가 바닥을 찍은 나성범을 앞세워 5강을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성범

프레지던츠컵 골프, 한국 선수들 빛나는 활약



김주형이 25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 할로 클럽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에서 모자를 벗어 갤러리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17.5-12.5 승리로 끝나

인터내셔널팀에 한국 4명 출전

김주형 인터내셔널 최고점 A+

올해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에서 인터내셔널 팀은 또 미국에 졌지만 인터내셔널 팀의 주축을 이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빛났다.

2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끝난 프레지던츠컵은 미국의 17.5-12.5 승리로 끝났다.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은 이로써 통산 전적 12승 1무 1패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계속됐다.

미국은 최근 9연승, 미국 홈 경기 8전 전승을 이어갔고, 1998년 호주 대회 이후 무패 행진도 계속했다.

세계 남자 골프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은 라이더컵으로 따로 열리기 때문에 프레지던츠컵의 인터내셔널 팀에는 유럽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력의 불균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대회가 프레지던츠컵이라는 평가가 계속 따라 붙게 됐다.

올해 대회에는 인터내셔널 팀 선수 12명 중 한국 선수가 4명이나 출전해 국내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임성재(24)와 김주형(20)이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냈고, 이경훈(31)과 김시우(27)는 단장 추천으로 합류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가 이번 대회 출전한 24명 선수의 평점을 매긴 가운데 김주형은 인터내셔널 최고점인 A+를 받았다.

이번 대회 2승 3패를 기록한 김주형에 대해 골프다이제스트는 "이번 주는 톱 김(김주형의 영어 이름)이 주인공이었다"며 "에너지 넘치는 흥미로운 경기를 보여준 그는 미국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주형은 경기력과 팬들에게 어필할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런 선수들로 인해 골프 종목의 이야기거리가 더 풍부해진다"고 치켜세웠다.

인터내셔널 팀의 막내 김주형은 대회 셋째 날 경기에서 승리 후 모자를 집어 던지는 과격한 세리머니로 팀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다.

3승 1패의 김시우에 대해서도 A 학점을 줬다.

골프다이제스트는 "단장 추천으로 합류했지만 팀 내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했다"며 "김주형이 인터내셔널 팀의 얼굴이었다면 김시우는 엔진 역할을 했다"고 높은 점수를 준 배경을 설명했다.

인터내셔널 팀에서 A 이상은 김주형과 김시우뿐이었고, 2승 1무 2패의 임성재와 2승 1패 이경훈은 나란히 B를 받았다.

미국 팀의 A+는 5전 전승의 조던 스피스, 4전 전승의 맥스 호마 두 명이었으며 4승 1패의 저스틴 토머스와 3승 1패를 기록한 패트릭 캔들레이가 A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의 손흥민과 황의조(오른쪽), 손준호(가운데)가 카메룬과의 평가전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전력질주를 하며 호흡을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투입?” ... 말 아끼는 벤투

벤투호 오늘 카메룬과 평가전 “어떤일 일어날지 예측 어려워”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에게 마지막 테스트 기회를 줄지 확실하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카메룬과 평가전을 하루 앞둔 2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이강인과 A대표팀에 처음 밝힌 양현준(강원FC)의 카메룬전 출전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경기 중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강인, 양현준과는 직접 관련 없는 말만 했다.

벤투 감독은 “어린 선수들은 경기력, 의지를 보여줘야겠지만, 이런 점은 소속팀에서 보여줘야 한다. 대표팀에 오르면 구단에서 먼저 기회를 받

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인과 양현준 모두 현재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하고 성과도 잘 내는 선수들이다.

이번 9월 A매치 기간에 이강인은 벤투호에서 손흥민(토트넘)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다.

대표팀에서 한동안 철저히 외면받던 이강인은 올 시즌 소속팀에서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맹활약했고, 벤투 감독으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부름을 받았다.

게다가 이번 9월 평가전 2경기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파가 출전할 수 있는 마지막 A매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지난 23일 코스타리카전에서 이강인을 쓰지 않았다.

이제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카메룬전은 이강인에게 마지막 테스트 기회다. /연합뉴스